무거운 머리와 가벼운 머리

(갈3:15~18)

15.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폐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16.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17.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사백삼십 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18.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무거운 머리와 가벼운 머리>라는 제목의 하나님말씀 증거 합니다.

어느 의사선생님이 적으신 글 속에서 이런 내용을 읽었습니다.
목 디스크가 걸린 환자의 고백을 적으셨는데, 그 환자의 고백이 머리가 이렇게 무거운지 처음 알았다는 것입니다.
머리가 무거워서 도대체 그 머리를 받쳐 들고 다닐 수가 없다는 거예요, 목 디스크가 걸린 뒤부터는.
여러분, 사람의 신체상의 머리 무게가 3kg에서 5kg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 4kg~5kg정도 된다 그러면 만만한 무게가 아니에요.
여러분 한 번 생각해 보세요.
1리터들이 물병이 있지 않습니까? 1kg일 거예요.
그 1리터들이 물병을, 한 예를 들어 4~5개 쟁반에다가 담아 가지고, 그 쟁반을 손으로 받쳐 들고 있다고 생각해 봅니다.
몇 분이나 들고 있을 것 같습니까?
몇 분 못 있어요, 팔이 아파서.
근데 잠잘 때 빼고 나면 거의 모든 시간 하루 종일을 우린 이 머리를 몸 위에 이렇게 달고 다

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이 머리 무게를 전혀 못 느끼잖아요? 아 그거 신기해요 그렇죠?
그냥 달고 있는 거지, 누가 머리가 무겁다고 생각하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근데, 이 목 디스크가 걸리고 나면 그렇게 무거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당연하지요, 이 두 팔로 5kg을 들고 있어도, 5분을 들고 있지를 못 할 텐데, 어떻게 이걸 하루 종일 몸이 받쳐 들고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심각한 얘기지요.

여러분, 모든 인간의 몸에서 몸으로 이루어지는 행동, 행위의 생물학적인 기초는 머리입니다, 머릿속의 뇌에요, 그렇죠?
중추신경과 말초신경을 통해서 행동이 나타납니다.
뇌의 구조도 복잡해요, 뭐 웬만큼 공부하지 않으면 잘 모를 거 같아요.
신경을 전달하는 물질이 있어서 뇌에 전달을 하는데 그 뇌도 후뇌, 중뇌, 전뇌가 있고 뭐 대뇌피질이 있고 뭐… 모르겠어요, 복잡해서.
근데 우리에게 필요한 기초지식은 뭐냐 하면, 사람의 신체를 통해 나타나는 모든 행위는 머리뼈 안에 들어 있는 뇌로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머릿속이 복잡하다! 아, 머리가 요새 무거워!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그거 왜 머리가 무겁습니까?
행동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행동을 해야 될지 저렇게 행동을 해야 될지 모르겠고, 또 아니면 하나의 행동으로 정해 졌더라도, 그 행동을 해야 되는데 행동을 하지 못하고 있어서 또 무겁습니다.
그러니까 머리의 무게가 인생의 부담과 비례합니다.
삶을 살면서 짐을 지고 살고, 그 짐에 대한 부담감을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담감은 머리 무게와 비례한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머리가 가볍지 않으면 삶이 가뿐하지 않습니다.
머리가 무거우면, 삶이 물먹은 솜처럼 한없이 한없이 처지고 무거워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인생의 모든 사람이 거의가 다 물먹은 솜처럼 무거운 머리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괜히 무거운 머리로 살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새해에는, 좀 가벼운 머리로 가뿐하게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그렇게 가벼운 머리를 가지고 가뿐하게 살 수가 있느냐?
여러분, 이 뇌 속으로 생각이 주어져서 행동이 나타나잖아요?
이 뇌 속에 주어지는 생각을 따라 행동이 나타나는데, 여기서 가벼운 머리와 무거운 머리가

결정이 된다는 겁니다.
가벼운 머리가 될 때 행동도 가뿐하게 나타나고 삶도 가뿐해지고, 인생에서 짐이 하나도 부담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주님이 쉬게 하시겠다고 그러잖아요?
그 말이 진실이 되시는 말씀입니다.
머리가 가벼워지면 인생이 가벼워지고 짐이 가벼워집니다.
머리가 가벼워지면 행동이 날듯이 가볍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머리가 무거워지면 인생이 무거워지고 행동이 무겁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가벼워집니까?
우리 마음으로 제일 먼저 하나님을 모셔 들이면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마음이 기뻐집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마음속으로 들어오신 하나님께서 우리 뇌에다가 생각을 넣어 주시는데, 당신의 생각을 넣어주십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 뇌 속으로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행동이 가벼워집니다.
왜냐하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생각이기 때문에.
반면에, 우리가 땅에서 좋다고 여겨지는 것들을 마음에 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과 연관되어져 있는 이 땅에서 굴러다니는 생각을 뇌에 담게 됩니다.
마음에 좋다고 여겨서 받아들인 그것들을 실제로 내 손에 쥐기 위해서, 이 땅에서 그것을 얻기 위한 방법론으로 돌아다니는 생각들을 머릿속에 집어넣고 있게 되는데, 이때 땅에서 주은 생각들이 인생을 무겁게 만듭니다.
예를 들어, 성공하는 사람들의 일곱 가지 습관이다.
우선, 일곱 가지 습관 만드는 것을 성공하기가 어려워요.
그 습관릏 몸에 익혀서 성공적으로 꾸려가기가 어려운 것이 아니라, 습관 자체를 익히는 데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일곱 가지 습관을 무슨 수로 습관을 들입니까.
무겁습니다, 일곱 가지 습관을 읽고 나서는, 그 일곱 가지를 다 행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인생이 무거워지는 거예요.

율법주의도 마찬가지에요.
십계명을 주셨는데, 이 십계명을 실천하는 차원에서, 실천의 단계에서 세분화 시켜가지고 613개의 조항을 만들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바리새인과 율법사 서기관들이 연구해 가지고 613개의 조항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율법 613개 조항은 성공하는 유대인들의 613가지 습관입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일곱 가지 습관과 마찬가지로 성공하는 유대인들의 613 가지의 조항이 바로 이 율법이라는 겁니다.
똑같이 율법주의도 이 세상에서 좋다고 하는 걸 마음에 받아들인 거예요.
근데 그걸 이루기 위해서 취한 행동원칙이 율법이라는 거지요.
그게 율법주의입니다, 무거운 거예요.
땅에서 좋다고 하는 걸 마음에 받아들이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이 세상에 돌아다니는, 행동원리를 머릿속에 담을 때, 인생은 무거워지는 겁니다.
자식을 마음에 받아들였어요, 그럼 자식을 잘 키우고 싶잖아요?
그러면 이 자식 교육법에 대해 이 세상에 돌아다니는 생각을 머리에 담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굴러다니는 생각들이라는 거는 중력을 받아서 무거워지고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걸 머릿속에 집어넣으니까 무거워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뭘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러느라 인생이 무거워서 하나도 못하고 맙니다, 실제로는.
해야 된다는 강박관념에 짓눌려 살 뿐이지, 실제로 가뿐하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중요한 포인트는 뭡니까?
마음이 무엇을 안으로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머릿속에 들어오는 생각의 질과 내용이 결정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이 뇌에 들어와야 행동이 나타나는 거예요.
생물학적으로 말해서 순서가 그렇다는 겁니다.
먼저 생각이 있어야 행동이 나타는데, 안 그러면 충동적인 반응일 뿐이지 행동이라고 할 수 없지요.
근데 생각은 어떨 때 나타나느냐?
내가 마음에서 좋아하는 것이 있을 때 생각이 돌아갑니다.
마음에서 전혀 좋지도 않고 관심도 안 가는데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관심이 가는 것, 좋아하는 것을 생각하게 돼있고, 생각이 있음으로 행동이 나타나게 되는 거지요.
그러므로 포인트는, 마음에서 좋아해서 비어 있는 마음 안으로 받아들이는 이 행위가 믿음이라는 것이고, 이게 행위보다 앞선다 이겁니다.
마음에서 뭔가를 받아들이는 이 단계가 행동으로 나타나는 단계보다 훨씬 앞서있다는 얘기를, 지금 사도바울은 계속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는, 마음 안으로 무엇을 받아들이느냐 마느냐의 단계에서 결정되는 일이지 행위의 문제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갈 수 있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를 지금 하는 것이지요.

마음으로 무엇을 받아들이는 게 뭡니까?
이게 바로 믿음의 단계라는 거예요.
마음 심장을 꺼내 이식해 주는 게 믿음 아닙니까?
그 이야기를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 해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이 될 것을 약속해 주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네 후손을 통해서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라는 약속을 창세기 곳곳에서 해 주시는데, 뭐 17장이라든지 28장이라든지, 28장은 야곱과 얘기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반복하는 거 아닙니까?
거기서 '네 후손'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이게 복수가 아니라 단수로 나온다는 것을 사도바울이 꼬집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드러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민이 구원받게 될 것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인데, 행위를 해야 되는 원칙으로서의 율법은 그 약속 이후 430년 뒤에 주어진 것이다.
근데 새삼스럽게 430년 뒤에 나타난 율법, 행위의 원칙을 가지고, 행위 이전 단계에서 주어진 그 약속을 무효화시켜 가지고 이 약속에 대한 믿음을 통해서 복을 받는 게 아니라, 어떻게 행위를 통해서 복을 받는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냐? 순서가 틀리지 않았냐? 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도바울의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게 복이거든요? 이게 복이에요, 근데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주어졌던 그 하나님과의 복으로서의 관계가 모든 사람에게 주어질 것을 약속해 주셨다 이겁니다, 내용이.
그 복의 내용이 뭐냐 하면, 우리 창세기 12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하고, 처음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대면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이점이 이상한 거예요, 그 앞에 아무 얘기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하나님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만나는 이 장면 이전에는 전혀 아무 관계도 없다가 창세기 12장 이 광경에서 불쑥 하나님이 나타나셔 가지고, 생면부지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가라한다고 아브라함이 곧바로 떠났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12장 1절에 나타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당신 자신을 계시 하셨고, 관계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고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하나님이라는 말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떠나라고 한다고 떠났겠습니까?
이거는 인격적인 관계가 형성이 될 틈이 없지 않습니까?
변화산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의 영화로운 모습을 보고 홀딱 반해도, 이미 1년 반 이상 2년 가까운 세월을 예수님과 함께 지낸 뒤입니다.
인격적인 관계가 전제되어 있는 것이에요.

이 12장 1절에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면 이전에 있었던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신약 사도행전 7장에서 스테반 집사님이 아주 명약관화하게 간단히 표현해주십니다.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보다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네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네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에서 우리는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관계를 알 수가 있고, 그리고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복이고, 그 내용이 뭔지는 아직 지금 말씀 안 드렸습니다마는, 이 복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 주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 복이 주어지는 것은, 내가 무엇을 행동을 해야 된다, 행위를 통해서 쟁취한다, 이것과 아무상관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행위 이전의 일이라는 얘기입니다.
마음의 문제라는 얘기에요.
행위는, 마음에 이런 복이 주어지고 나면 그 다음에 마음 안으로 임하신 하나님께서 생각을 넣어 주실 텐데, 이때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넣어주시는 생각은 하나도 어렵지 않게 가뿐하게 행할 수 있는 것들이 된다 이 얘기입니다.
이게 바로 로마서에서 말하는 성령의 법을 따라 사는 것이다 이거에요.
가뿐하게 사는 겁니다, 머리가 복잡하지 않은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복의 내용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실마리를 주는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라고 하는 이 뜻이 무슨 뜻일까요?
말씀드렸어요, 자주 말씀드리고 앞으로도 계속 말씀을 반복해서 드릴 겁니다.
영광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인데 아브라함에게 영광의 하나님이 보였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창세기에서는 계속, 천사들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는 거로 보이고 있습니다.
부지중 손님을 접대했다 그래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부지중에 접대했다.
그러니까 그 모양이 천사가 오신 것이지마는, 변화산에서 예수님처럼 보였기 때문에 영광의 하나님이 보였다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부지중에 대접했다고 하는 얘기는, 그냥 우리같이 보통 사람들로 나타나신 거예요.
그럼 이 영광의 하나님이 보였다는 건 무슨 뜻일까?
그렇게 외관상 막 광채가 나는 천사들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나타난 게 아니라 그러면, 그러면 무슨 뜻을 말하는 것일까?
아브라함의 마음에서 하나님이 영화로운 조명을 받게 되셨다 이겁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에서는 영화로운 조명을 받고 계십니까?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새해가 되었어요, 그럼 새해 소원이 뭡니까?
아! 새해에는 내가 돈을 많이 벌어야지.
그러면 '영광의 하나님이 보여'라는 말 대신에 '영광의 돈이 보여'라는 말이 됩니다.
새해에는 우리 가정에 무탈하게 하는 일이 다 잘됐으면 좋겠다.
그러면 '영광의 가정이 보여'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새해에는 내가 꼭 승진해야지 그러면, '영광의 승진이 보여'
그 다음에 본문에서 '영광의 하나님이 보여 가라사대 떠나라!' 행동을 요구하잖아요?
마찬가지에요, 영광의 승진이 보이면 그 다음에 아! 내가 어떻게 승진을 해야 될까? 생각하며 행동하려고 합니다, 머리가 무거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광의 가정이 보여' 그러면, 가정의 일을 내가 어떻게 잘 꾸려서 무탈한 가정을 이끌 것인가 생각하기 시작하면서 머리가 무거워집니다.
돈을 많이 벌어야 돼요, 영광의 돈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돈을 어떻게 벌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머리가 무거워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영광의 하나님이 보인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내 마음에 첫 번째로 들어온 주인공이 누구냐, 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영광의 돈이 보이면, 첫 번째 소원이 돈 많이 벌어야 되겠다 그러면, 돈이 첫 번째로 일등하고 들어온 것이고, 그래서 영광이 주어진 것이고, 자식이 들어오면 자식이 내 마음에서 일등한 것이고, 건강이 들어오면 건강이 일등 한 것이고, 승진, 아니면 노처녀 노총각들은, 요번 해에는 꼭 결혼해야지, 그러면, 결혼이 일등으로 들어온 겁니다.
결혼을 하려 그러면 어떻게 하냐? 생각하지요 행동하기 위해서.
결혼 소개소에 내 이력을 갖다 낼까? 아니면 뭐 미팅을 자주할까? 소개팅을 좀 해 볼까? 이

런 생각들을 하면 무거워지는 거예요, 한 해를 무겁게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영광의 하나님이 보였다는 것은 내 마음에 일등으로 하나님이 들어오셨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사람 돈 좋아할 때 나는 하나님 좋아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승진 좋아할 때 나는 하나님 좋아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 결혼해야 되겠다는 강박관념 갖고 있을 때, 나는 하나님만 마음에 모셔 들이는 겁니다.
이게 바로 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게 될 때,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사건을, 내 사건으로 내 마음이 바라보며 재현하게 될 때, 내 앞에서 재현되는 사건으로 내가 받아들일 때, 이 세상에서 좋은 모든 것들이 다 내 마음에서 떠나 버리고, 하나님이 일등 하셔서 아브라함과 똑같이 내게 '영광의 하나님이 보여'라고 말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보이잖아요?
그러면, 가라사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데, 그때는 율법과는 다르게, 율법은 바깥에서 주어진 명령 아닙니까? 내 안에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영광의 하나님이 내 마음에 보여서,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게 돼서,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는 얘기는, 내 생각과 내 생각의 주머니 안으로 들어온 하나님의 생각이니까, 가뿐하게 행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613개의 조항을 이루기 위해서 무거운 짐을 지고 다닐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성공하는 사람들의 일곱 가지 법칙을 수행하고, 일곱 가지 습관을 몸에 익히느라고 애쓸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모셔 들이면, 하나님께서 내 속에서 내 생각 속에다가 '가라사대'라고 말씀하고 계시니까 그 생각이 내 생각 안으로 들어와서, 움직이는 것이 가뿐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안 되는 이유는, 여러분이나 저나 다 하나님이 영광의 하나님으로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내 마음에 하나님이 항상 일등으로 들어와 계시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바울의 날마다 죽는다는 얘기는, 말을 바꾸면 날마다 영광의 하나님을 보고 하루를 살았다는 얘기에요.
머리가 가벼워지는 겁니다.
머리가 가벼워지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머리가 가벼워지는 길은 오직 한 가지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이 내 마음에 영광의 하나님으로 보이는 겁니다.
내 마음에 일등이 되시는 거예요.

일등에게 영화로운 조명이 주어지는 거 아닙니까?
2, 3등에겐 조명이 안 주어져요.
기자들이 사진 찍을 때, 금메달리스트를 중심으로 사진을 찍습니다.
내 마음에서 하나님이 일등해서 들어오시면,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모세 같아지는 거예요, 사도바울 같아지고 베드로 같아지는 거예요.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니까.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님의 힘으로 수행되어지고 실천되어집니다.
율법주의는, 율법조차도 이 세상에서 내 마음에 일등으로 들어온 것들을 위한 방법으로 동원을 하게 되니까, 이게 완전히 하나님이 주신 율법임에도 불구하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인간적인 원칙이 돼 버리는 거예요.
세상 것을 얻기 위한 방법론으로 동원 되니까 무거운 거예요.

자! 새해에 이루고 싶은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것저것 많지요? 많다 보니까 생각이 많아지지요?
계획이 많아지고, 무겁습니다.
왜 그렇게 또 무겁게 시작하세요?
이제 20년 30년 그렇게 해 봤으면 다 아는 거 아니에요?
또 다시 되풀이합니까? 이루지도 못할 무거운 계획들을.
그거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일등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 마음에서.
하나님이 왜 일등 못하시는지 아십니까?
갈라디아서 1장에서의 말씀처럼, 주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신 사건이 내 눈앞에 환히 보이는데 그걸 안 보고 있는 겁니다.
십자가만 보면 이 세상에서 좋은 것들이 다 2, 3등, 꼴등으로 밀려나게 되고, 하나님이 내 마음에서 일등 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약속이에요 약속.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지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일등 되시면, 들어오신 하나님께서 '가라사대'라고 내 마음과 내 뇌 속에 생각을 주시고 그 생각은 하나님의 힘으로 이루어져 나갈 때, 가뿐해집니다.
삶이 가뿐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한 번, 가벼운 머리로 가뿐하게 사는 2014년 되기를 소원해 보면 어떨까요?

어떤 일을 하실 지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내 마음은 하나님이 일등이 되면, 더 이상 바랄 게 없을 만큼 기뻐지고 만족하게 되는 거예요.
돈을 많이 벌어야지 그러잖아요, 돈 믿는 거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왜냐하면 돈 벌어야 기쁠 거라고 믿으니까, 돈 벌어야 만족할 수 있을 거라 믿으니까.
승진? 이것도 믿음이라 그랬어요.
승진해야 기쁠 수 있다고 믿으니까, 승진이 나에게 만족을 줄 수 있을 거라고, 승진의 힘을 믿으니까 이게 믿음인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만족과 기쁨과 행복의 근원이 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뇌 속에 생각이 주어져서 행동하기 이전에, 우리는 마음으로 미리 성공하고 하루하루 매일 매일을 살아갑시다.
그러기 위해서, 제로원복음방송도 일 년 내내 여러분의 교회에 대예배나 대예배에 준하는 예배가 있는 날을 제외하고는, 일 년 내내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할 거예요, 아침마다.
왜?
가벼운 머리로 이미 마음에서 성공한 자들이 되어서, 하루를 가뿐하게 사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가벼운 머리의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처럼 뛸 수 있어요, 말처럼.
지치지 않고 뛸 수 있습니다.
행동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주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내 것이 되는 이 복을, 새해에는 매일같이 누리게 하셔서, 가벼운 머리로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지는 생각을 따라 말처럼 가볍게 뛰며 살아가는 한 해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